**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2023년도 규제환경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개최**

2023년 9월 21일, 서울 -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9월21일 오전 10시 개최했다.

ECCK백서는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17 개 산업 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그리고 보험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 회견에 직접 참석하여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량이 크게 성장했다. 2022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3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1]](#footnote-1)”고 언급했다. 반 후프 회장은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 한국 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 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유럽의 외교수교 6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로, 지난 5월에 한-유럽 정상회담이 열렸고 양국은 공급망을 비롯해 산업 경쟁력, 기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이 그린경제와 디지털 부분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은, “ECCK는 지난 2012년 설립 이래 공정하고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했다. 지난 수년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 정부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백서의 건의사항들에 대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지난달 공포된 전기차 배터리 사전인증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과 관련하여 “UN규제에 기반한 유럽의 형식승인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인증에 대한 규제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배경은** 위원장은 “혁신 신약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질병의 악화로 고통받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 접근성이 향상되면, 질병의 완치 혹은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백서에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와 신규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절차의 체계화, 그리고 감염병 진단에 큰 역할을 한 체외진단기기의 행위료 조정을 건의한다.” 고 덧붙였다.

ECCK 주류 위원회 **프란츠 호튼**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는 한국 소비자와 주류산업 모두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을 누리게 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책임감 있는 음주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한국시장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한다면, 과도한 주류 음용 등 부작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전했다.

ECCK 식품 위원회 **토마스 카소** 위원장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많은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투명 플라스틱의 선별 및 재활용에 국한되어 있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문고영**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은 조단위의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되어 한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 활력이 필요한 시기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국가적이고 또한 전세계적 목표 달성에 큰 기여가 예상된다.” 고 언급했다. 또한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인허가과정과 명확한 주민동의 및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계통 접속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매년 열리는 풍력 입찰 선정 용량 사전 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 특별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ECCK 보험 위원회 **에르베 불랑제** 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IT 안보는 금융업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와 더불어 IT 규제 역시 발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IT 규제가 더욱 현대화되고 기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여 전 세계의 (사이버)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더욱 안정화되고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보험 측면에서는 특별히 자동차 보험을 언급하며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과도한 비용과 사기 청구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모두 보험료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과도한 비용을 떠맡게 되는 최후 지불자는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하며, 서로 공동의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지난해(2022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백서 파일 다운로드 링크**

* 한국어: [ECCK-White-Paper-2023\_KR\_Final.pdf](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3/09/ECCK-White-Paper-2023_KR_Final.pdf#new_tab)
* 영어: [ECCK-White-Paper-2023\_EN\_Final.pdf](https://ecck.or.kr/wp-content/uploads/2023/09/ECCK-White-Paper-2023_EN_Final.pdf#new_tab)

**ECCK 백서 2023에 대하여**

올해 ECCK 백서는 총 17 개 산업별분야(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보험, 화장품, 화학, 패션 및 유통,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방위, 관광, 지속가능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총 100개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주요이슈 및 건의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200 여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대하여**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기 위해2012년 설립된 협회이다. 회원사들에게 한국의 비즈니스 규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기관 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한국에서의 비즈니스에 있어 유럽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약 40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를 대표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직원들이 소속되어 있다.

(끝)

1.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22) [↑](#footnote-ref-1)